

<고전 소설>을 대하는 법 feat.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전 소설의 본질은 말 그대로 “재미있으려고 쓴 소설”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서로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며 소설을 전개해 나간다.

[주동 인물]: 주인공을 포함한 주인공과 같은 편인 인물들을 말한다.

[반동 인물]: 주인공과 같은 편을 방해함으로써 소설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인물들로부터 소설이 전개되기 때문에 두 인물의 구별이 중요하다.

시나 시가와 달리 소설은 전체 중 극히 일부만이 선별되어 문제로 출제된다. 따라서 어느 부분 부터 시작하는지도 전적으로 출제진들에게 달려있으며, 여기에는 노골적으로 의도가 드러난다. 소설을 출제할 때 ‘앞부분’이나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부터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구별할 수 있게 지문이 구성된다. 주로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로 구분하면 눈에 잘 띄니 참고하길 바란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생각의 회로 하나를 정리하자.

“앞부분에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표시하며 정리하자”

고전 소설의 출제 point 즉, 출제자의 의도는 ‘서사적 장치’이다. ‘서사적 장치’란, ‘왜 이 소설이 재미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는 문학적 표현을 말한다. 이는 주로 <보기>에서 작품의 ‘서사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에, <보기>에 나온 ‘서사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지문 독해 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으로 꼽힌다.

“<보기>에 나오는 [서사적 장치]를 독해 시 이용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생각의 회로이다.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간단한 태도들을 정리해보자.

- 1)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다양하므로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2309에 출제된 <정수정전>의 경우 정수정이 ‘대원수’로 호칭이 중간부터 바뀌게 된다.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주로 ‘작위를 수여받는 경우’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문을 읽다가 나오는 ‘새로운 작위를 수여받는 경우’는 호칭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생각하며 읽도록 하자.

ex)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_ ‘정수정 - 대원수’

- 2) 한 줄 한 줄에 목매면서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갈래가 소설이다. 그렇기에 부분을 적절히 나누어 부분마다의 요약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사건의 전후’, ‘공간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영화감독으로서 Scene을 대본에서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콘티를 짜는 마음으로 장면을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자. 그리고 요약은 간단히 쓰는데, 이때의 요약은 <보기>에 나온 단어를 이용하도록 하자.

3) 예전 사람들이 읽은 소설이기에 우리와는 사고 과정이 다른 면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당대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 감상해야 한다. 보통 고전 소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영웅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대리 만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많기에 당대 사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당대 사회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 신분 질서: 신분에 따른 능력 억압, 적자와 서자 출신의 차이로 인한 차별
- 남성과 여성: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
- '忠 & 孝'의 이념: 목숨과 바꿀 정도로 당대 사회에서 아주 강력했던 이념
- 초월적 공간에 대한 환상: 상상력이 표출된 fiction

이 세 가지를 통해 이번 9평 문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정수정전」

〈보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보기〉를 통해 제시된 이번 고전 소설의 [서사적 장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다. 따라서, 소설을 읽으며 각각의 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떻게 역할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정수정이 모든 역할에 충실한 '대단한 사람'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 # Scene 1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 \_ 황제가 {진경}을 총애  
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_ {진량}이 (정 상서)를 해치려 함

→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찾자. (정 상서)가 {진량}을 소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  
제목이 '정수정전'이니 정 상서는 뭔가 정수정의 가족 같기도 하고, 정수정 본인 같기도...  
그러므로 정 상서를 [주동 인물] ( ), 진량을 [반동 인물] { }로 표기하자.

Scene 1: 정 상서는 착한 사람, 진량은 나쁜 사람

## # Scene 2 (공간이 바뀌었으므로 씬 넘버 체인지)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_ {진량}이 해할 기회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다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_ ‘간악한’이라고 표현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웁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_ 반역으로 몰아감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_ (중관)이 편 들어줌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_ 결국 [반동 인물] 勝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통도  
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_ 귀양 가는 정 상서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_ 정씨 집안이 해체됨 & (절강 만호)

→ 역시나 [반동 인물] {진량}은 [주동 인물] (정 상서)를 해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귀양을 가게 된 (정 상서)와 두 모녀는 당연히 슬픈 상황이다.  
여기까지 단순한 [주동 인물] / [반동 인물]을 구분하는 파트였다.

Scene 2: {진량}이 (정 상서)를 귀양 보냄으로써 시작된 갈등과 시련

# Scene 3 ('차설'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므로 씬 넘버 체인지)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피 놀라 황제께 \_ (정 상서)가 죽음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_ 안 그래도 모녀 슬픔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_ 별세 소식에 절망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 {진량}이 제대로 (정 상서)를 해치면서 소설의 균형이 완전히 [반동 인물] 쪽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고전 소설에는 Sad ending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이  
 가능하다. “다른 [주동 인물]이 어떻게든 승부를 역전 시키겠구나”

이 소설에서는 제목과 연관 짓는 순간 예측이 온전히 가능했다. ‘정수정전’이므로, 딸인 정수정이  
 아버지 정 상서의 복수를 진량에게 할 것, 이것이 어려운 예측일까? 흔히 나오는 아침 드라마에  
 서 이 같은 장면이 나왔다면, 당연히 했을 예측 아닌가. 일상생활의 감각이 이용되길 바란다.

Scene 3: {진량}으로 인해 죽은 정 상서와 그로 인해 고통 받은 정수정과 정수정의 어머니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_ 남장 모티프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원과 혼인한다. 호왕이 \_ 남편: 장원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원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_ 호칭 change ‘대원수’

# Scene 4 (중략 전후는 많은 것이 바뀌므로 중략 줄거리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한다)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_ [영웅]으로서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_ (한복)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_ 복수를 해냄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_ [효녀]로서

→ 역시나 예측대로 [주동 인물]이자 주인공이 정수정이 [반동 인물] 진량을 멋있게 죽였다.  
 <보기>에 나온 정수정의 세 가지 정체성 중 [영웅], [효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초점을 맞춰 독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Scene 4: 정수정의 [영웅], [효녀] 정체성이 드러나며 반동 인물의 제거가 이루어짐

## # Scene 5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_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성취하고 새로운 칭호를 획득함.

## # Scene 6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_ 장연의 엄마가 태부인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_ 태부인 화남 (통분)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올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_ 다른 부인, 태부인 모두 정수정과 장연이 화목할 것이라고 믿음. (화 가라앉음)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_ (태부인)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_ [부녀자]로서의 정체성 달성

→ 정수정의 [영웅] 정체성으로 인해 [부녀자]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위협 당했다. 시어머니인 태부인이 순간 화났으나, 다른 부인들의 도움으로 며느리인 정수정에 대한 좋은 인식을 회복했다. 따라서, 다른 부인들과 태부인 모두 [주동 인물]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결국, <보기>에서 얘기한대로 내용이 흘러가면서 끝나쳐졌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어차피 이 소설의 가장 큰 문학사적 의의는 ‘세 가지 정체성’이니 그에 맞춰 문제를 풀자.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선지 중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4번 선지로 효녀의 정체성과, 5번 선지로 부녀자의 정체성이 나타나므로 둘을 먼저 살펴야.

4번 선지의 경우 한복이 진량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고 했다. 근데, 효녀 정체성이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딸인 정수정이 직접 아버지 원수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 아니었는가. 4번 선지 말대로라면 한복이 효녀(?)인 셈이다. 이럴 리가 없다.

답은 역시나 4번이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으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정수정전을 골러가게 하는 가장 근원적 사건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다. 이 사건으로 모든 정체성이 시작됐기에 이번 19번을 통해 문제로 출제되었다. ㉡으로 인해 정상서 죽음.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의 황명이 비보이니 틀린 선지.

2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는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와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장계 (정상서 죽음)

b: 첩서 (전쟁 승리)

a는 정수정의 동기

b는 영웅으로서의 정체성

→ 3번 선지가 답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정체성을 확인하자.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 부녀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4번 선지.

But, 정수정은 세 가지를 모두 이뤄냈다는 것이 소설의 주 내용이므로 틀렸다.

이런 식의 출제자의 의도를 <보기>로부터 얻어내어 문제에 활용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기를 바란다. 또한, 소설 독해 시 위 내용처럼 핵심만을 짚어 시간을 단축하자!